

## 한국 사회에서 공존을 위한 문화심리학적 이해: 수직적 관계주의와 수평적 관계주의를 중심으로\*

박 준 성†

한국 사회는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공동체를 개인보다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온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현재 이러한 경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문화에 대한 전통적인 Hofstede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Triandis와 Gelfand(1998)의 수직적 집단주의-수평적 집단주의, 그리고 Brewer와 Chen(2007)은 집단주의를 문화적으로 세분화하여 집단적 집단주의와 관계적 집단주의로 구분했다.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를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Triandis와 Gelfand(1998)의 수직적-수평적 구분과 Brewer와 Chen(2007)의 집단적-관계적 집단주의 개념을 결합하여 한국 문화를 설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서 한국 사회의 관계 문화에 대해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야기되는 세대 간의 갈등과 공존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했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를 수직적 관계문화와 수평적 관계문화라는 관점으로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이 제안에 대해 앞으로의 실증적 연구 필요성과 그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요어 : 한국 사회, 수직적 관계문화, 수평적 관계문화, 문화심리학, 공존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4093121).

본 연구는 2022년 한국 문화및사회문제심리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교신저자 : 박준성,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심리학 전공,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E-mail: jspark0711@cau.ac.kr



Copyright ©2024, The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of Culture and Social Issue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한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규정해 보면, 우선적으로 집단주의가 연상될 것이다. 이는 한국 사회가 오랜 기간 역사적으로 개인보다는 집단 또는 공동체를 생각하며 살아온 역사적 배경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여러 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특히,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의 경향으로 강해지고 옮겨가고 있다는 주장이나 세대에 따라 특성이 다르다는 주장도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이중환, 2000; 한성열, 안창일, 1990). 또한 한국 사회의 특징을 문화적으로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의 양분해야 하는 구도로 분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기도 하다(박혜경, 김상아, 2018; 정태연 등, 2005; Chan et al., 1996; Gelfand et al., 1998). 즉, 한국 문화를 단순히 개인주의나 집단주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리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문화와 세대에 대한 이해를 심리학에 기반하여 좀 더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사회의 변동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겪으며 전통적 관계 문화와 현대적 가치관 사이의 긴장 관계가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한국 사회의 과거와 현재에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현대성 기원을 살펴보면, 서구 유럽 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발전을 통해 현대성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김진송, 1999). 한국의 현대성을 찾아보면, 구한말에서 식민 시기에 이르러 개항, 동학혁명 등의 사건 등을 찾을 수 있다(김동노, 2023). 현대라는 표현은 역사

적 체계와 구조 속에서 자리 잡은 일련의 과정이지만 이를 체계와 구조만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현대성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은 이러한 범주가 실재하기보다는 이러한 영역으로 분할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와 유사한 현대 사회의 출발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시간적으로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보이지만 알고 보면, 상당히 멀게 느껴진다. 이러한 변화는 분명 낮은 변화는 아닐 것이다.

한국 사회에서 현대가 형성된 시기는 1930년대로 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근·현대기 시작될 무렵의 상황에서 이분적 사고가 등장했다. 현대와 과거 사이에서의 이해 간의 갈등은 문화적 대립을 양산했고, 과거에서 현대로의 시간에서 단절이라는 경험을 통해 한국 사회의 패러다임은 문화적 이분적 사고를 갖게 만들었다(김동노, 2023). 특히,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현대를 지향하면서 여러 문제에 봉착한 가운데 식민이라는 식민 사회를 경험했고, 이 식민 사회를 결친 우리 사회는 현대화의 물결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되었다(김병곤, 2011; 김진송, 1999). 그렇기에 현대란 특정한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특정한 삶의 방식, 즉 서구적인 것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심리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가 지배하던 1990년대 이후 개인주의 특성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김동노, 2023). 집단주의 분위기가 강했던 1980년대에 이런 변화의 조금씩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다. 199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특징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방송 매체 중 MBC에서 방영된 1991년 '사랑이 뭐길래'와

1992년 ‘아들과 딸’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며 다른 면모의 사회가 발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 당시 대학생 및 젊은 세대들이 보여준 개인주의를 이기주의로 몰아붙이고 비난한 사건도 있었다(박노자, 2002). 기존의 연구(나은영, 민경환, 1998)에서는 서구 문화의 유입과 유행으로 한국 문화가 집단주의에서 개인주의로 변화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실제 개인주의는 널리 퍼지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집단주의는 약해지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한 문화심리학 접근을 통해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의 변화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문화적으로 집단주의 특성이 한국 사회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정태연, 2010; 최상진, 한규석, 1998).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집단주의적임을 주장하는 연구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연명흠, 2010). 동시에 한국 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도 이 결론과 일치했다(박혜경, 김상아, 2018). 그러나 특이한 사실은 한국 사회를 집단주의적 특성이 강한 사회라고 명명하지만,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사이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으며, 인구학적 변인 중, 세대 변인에 따라 개인의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나은영, 차유리, 2010; 나은영, 차재호, 1999).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 또는 공동체주의가 강했던 사회에서 어느 정도 변화의 계기가 맞이하며 집단주의와 개인주의가 혼재하게 되는 상황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맥락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이중환, 2000; 한성열, 안창일, 1990). 그렇지만

한 사회가 문화적 특성이 다른 문화적 특성으로 급격히 그리고 완전히 바뀌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면,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의 특성들이 서구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 사이에서 독특한 결합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다(한규석, 2009). 현재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개인주의는 어느 정도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있지만, 서구의 특성과 다른 형태의 개인주의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Hamamura, 2012).

한국 사회에서 개인이 아닌 사회 현상으로서 개인주의가 나타나는 모습을 찾아보면, 가장 직접적인 지표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화에서 대표적으로 변화는 가족 형태의 변화이다. 1인 가구 수 급증, 결혼과 출산의 연령, 출산율 등에 대한 변화가 드러나고 있다. 개인화의 경향은 한국 사회의 통계자료를 통해서도 확인가능하다. 우선 22년 기준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2명으로 전년(2.3명)보다 0.1명, 17년(2.5명)보다 0.3명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통계청, 2024). 22년 가구원수별 비중은 1인 가구가 34.5%, 2인 가구가 28.8%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3인 가구(19.2%)와 4인 가구 이상(17.6%)은 감소 추세를 보인다(통계청, 2024). 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전년(0.78명)보다 0.06명 감소했으며, 역대 최저치를 보인다(통계청, 2024).

한국 사회에서 보이는 개인화의 경향 중, 가족 형태와 가족주의의 변화에는 분명 이러한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흔히 가족 해체로 불리는 현상으로 1인 가구의 증가, 결혼율과 출산율 저하, 이혼율 증가 등은 사회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인의 전략에서부터 나왔을 수도 있다. 2024년 현재, 1인 가구의 증가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해 나이가 든 세대에서 많아지고 있으며, 결혼율의 저하와 저출생에 대한 결혼과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어려움도 현실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개인화 경향성이 개인주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전제로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혼자 살기, 혼자 놀기, 혼밥, 혼술 등과 같은 모습은 개인의 독립성, 주체성, 그리고 자율성을 존중하고 추구하고자 하는 경향을 일상에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개인화 경향은 사회적 요구나 개인의 특성이라기 보다는 독립된 자기(independent self)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에도 최근 직장생활에서 보여지는 MZ 세대의 연장근무 거부, 조용한 퇴사, 회식 회피,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개인의 삶에 대한 중시 등과 같은 경향은 개인주의와 같은 세대간의 명확한 차이로 꼽을 수 있다(김우성, 허은정, 2007; 임성윤, 2023).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의 개인화는 개인주의적 모습과 그 확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개인주의적 가치 추구가 여러 사회적 현상에서 드러나고 있다(엄승범, 김재우, 2021). 그 대표적인 사례로 서구 자유주의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공정성(fairness)'에 대한 요구이다.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기존의 한국 사회에서는 기회균등이나 절차 공정성은 사회적으로 다른 순위보다 부차적 위치에 머물러 있었고, 이들보다 사회적으로는 공존과 공유의 가치가 더 중요하게 여겨졌다(장민희 등, 2022).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이 중심 가치로 여겨지게 된 밑바탕에는 1997년 IMF 경제위기 이

후 점차 심화 확대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가 놓여있었다. 이미 기존의 여러 연구가 보여주듯(유경준, 2009; 정건화, 2000), 불평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임금구조의 개선이나 개인 간 경쟁에서 공정한 기회균등이나 절차에 대한 요구가 있어 왔고,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내세우며 개인주의 가치가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했다(엄승범, 김재우, 2021; 장민희 등, 2022). 한국 사회에서 공정성의 이슈가 전면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민주적 촛불시위였다. 또한 최순실의 국정 농단, 그리고 그녀의 딸 정유라가 보인 대학 입시에서의 비리는 많은 수의 학생 참여를 끌어냈고, 공정성을 촉구하는 기폭제가 된 것도 중요한 사실이다. 많은 사람과 단체가 해당 정권에 대한 여러 이슈를 들고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 수개월간 참여한 사회운동의 가치가 바로 '공정성'이었다. 이후 한국 사회에서의 공정성 요구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었다(박태균, 2019; 정용인, 2016; 장민희 등, 2022).

이런 여러 이슈들이 문화적으로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로 바꿨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에 관한 질문을 하게 만든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서 문화심리학 이론을 살펴봐야 할 필요성이 다시 제기된다. 이에 기존의 문화심리학과 관련된 Hofstede, Markus, Kitayama, Oyserman, Triandis 등의 연구를 살펴보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 문화에 대한 심리학적 이해

문화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소개하는 학자

는 Hofstede이다(Hofstede, 1991). Hofstede는 문화에 대해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집단주의(collectivism)로 구분하여 소개했다. 문화적으로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개인 간의 구속력보다 분리가 중요한 사회, 한 개인이 자신을 돌보면 되는 사회, 개인의 이익이 집단의 이익보다 우선된다.

상대적으로 집단주의는 문화적으로 집단의 조화(harmony)를 중요시하고, 여기에 속한 구성원들은 자신의 집단에 의해 부여된 의무와 규범에 맞게 동기화되고, 개인보다는 집단의 목표, 즉 집단의 이익을 개인보다 우선시하며 자신을 집단구성원들과 연결성을 강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표 1은 Hofstede가 제시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그러나 Hofstede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이론은 현재 여러 비판에 놓였으며, 특히 비서구권 국가의 문화를 설명하는 데 큰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Triandis & Gelfand, 1998). 예를 들어,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집단주의 특성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Hofstede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이론으로는 그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Triandis와 Gelfand(1998)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네 가지 특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개인적 면과 집단적 측면의 강조 또는 독립적 성향과 상호의존적 성향의 강조하고, 둘째, 개인적 목표와 집단의 목표에서 우선적 가치를 중시하며, 셋째, 사회 교환과 공동 관계에 대한 강조 또는 합리성과 관계성에 대해 강조한다. 넷째, 사회적 행동의 결정요인으로 태도와 규범의 상대적 중시한다. 즉,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태도를 규범보다 중시하고,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규범을 태도보다 중시한다. 이처럼 Triandis와 Gelfand(1998)는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는 모든 개인과 사회가 공유하고 있고, 단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한편 Triandis와 Gelfand(1998)는 문화 성향을 개인주의-집단주의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너무 단순하여 동일 문화권 내 구성원들의 개인적 차이를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하면서 기존의 개인주의-집단주의 차원 외에 수평적(horizontal)-수직적(vertical) 차원을 새롭게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뿐만 아니라 Triandis와 Gelfand(1998)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는 여러

표 1. Hofstede가 제시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특성

개인주의	집단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이해타산적 동기로 조직에 참여</li> <li>• 조직은 구성원을 돌보지 않음</li> <li>• 조직은 구성원의 복지에 적당한 정도의 영향을 미침</li> <li>• 자기 이해관계는 자기가 지킴</li> <li>• 정책과 실천은 개인의 주도적 해동을 용인</li> <li>• 조직 내부 및 외부에서 승진</li> <li>• 경쟁 원리에 의한 승진</li> <li>• 정책과 실천은 어떤 경우에도 일관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도덕적 동기로 조직에 참여</li> <li>• 조직은 가족과 같이 구성원을 돌보야 함</li> <li>• 조직은 구성원의 복지에 크게 영향을 미침</li> <li>• 조직이 사회의 이해관계를 보호하는 것을 기대</li> <li>• 정책과 실천은 충성과 의무감에 의거</li> <li>• 조직 내부에서 승진</li> <li>• 연공 서열에 의한 승진</li> <li>• 정책과 실천은 상대편의 관심에 따라 변화</li> </ul>

표 2. 수직/수평-개인주의/집단주의의 특징

	개인주의	집단주의
수직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li> <li>• 시장가치</li> <li>• 권한 순위</li> <li>• 높은 자유</li> <li>• 낮은 평등성</li> <li>• 시장 민주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다른 자기</li> <li>• 공동의 공유</li> <li>• 권한 순위</li> <li>• 낮은 자유</li> <li>• 낮은 평등성</li> <li>• 공동체주의</li> </ul>
수평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자기</li> <li>• 시장가치</li> <li>• 평등성 일치</li> <li>• 높은 자유</li> <li>• 높은 평등성</li> <li>• 민주 사회주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사람과 동일한 자기</li> <li>• 공동의 공유</li> <li>• 평등성 일치</li> <li>• 낮은 자유</li> <li>• 높은 평등성</li> <li>• 공동체 생활</li> </ul>

종류가 있다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보이는 개인주의와 스웨덴의 개인주의는 다르고, 한국의 집단주의와 이스라엘의 집단주의(키부츠)도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 개인주의-집단주의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수직적 차원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설명했고, 표 2는 이 특성을 정리한 표이다.

### 수직적 개인주의

수직적 개인주의(vertical individualism)의 개인은 자신을 독립적 자기로 인식하며 개인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나는 최고가 되길 원한다”라고 말한다. 모든 구성원은 불평등을 받아들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이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과 프랑스에서 이런 사회에서는 경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미국과 프랑스에 이런 성향이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미국의 중상류층에서는 수직적 개인주의의 특징이 많이 나타나고 있

다(Markus & Kitayama, 2014). 그렇기에 사회적 부가 계층 간에 있다는 것을 당연히 여긴다.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수평적 개인주의

수평적 개인주의(horizontal individualism)의 개인은 독립적 자기로 자신을 인식하며 개인은 다른 사람과 거의 모든 상황이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은 독립적이며 다른 사람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한다. 이런 성향은 스웨덴과 호주에서 발견된다. 스웨덴인들의 개인주의는 수평적 특징을 많이 지는 것으로 여겨진다(Daun, 1991). 여기에 속한 사람들은 개인주의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지만, 그들은 자조성(self-reliance)이 높기에 혼자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평가한다(최계영, 2002). 그렇기에 독특하게 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방해받지 않으면서 자율적으로 일하길 원한다.

### 수직적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의 개인은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며 집단 간의 불평등을 받아들인다. 상호의존적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중시한다. 자신을 집단에 속해 있다고 보지만 집단구성원들은 불균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외부 집단과 경쟁하며 구성원의 봉사와 희생도 중시한다. 그렇기에 사회적 상급자에 대한 책임과 의무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리더에 대해 복종을 강조한다(Aycicegi-Dinn et al., 2010; Triandis & Gelfand, 1998; Zhang et al., 2010). 인도(카스트 제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은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수평적 집단주의

수평적 집단주의(horizontal collectivism)에서는 개인을 집단의 한 부분으로 보는 패턴으로서 자신은 집단의 일원이며 다른 이와 극히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상호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상호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과도 같다고 생각한다. 수평적 집단주의의 개인은 집단의 일부로서 자신을 인식하지만, 모든 구성원은 평등하다고 믿는다(김소정 등, 2013; Burroughs & Eby, 1998; Yamaguchi, 2003). 이스라엘 같은 사회는 수평적 집단주의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이들은 남을 지배하거나, 튀어 보이려고 하지 않고, 공동체의 목표, 필요성을 개인의 것에 우선시키고 있다.

Triandis와 Gelfand(1998)의 수직적 집단주의-수평적 집단주의 개념은 기존의 집단주의 개념보다 정교한 모델이지만, 근본적으로 Hofstede의 집단주의에 기초한 이론에서 벗어

나지 못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Brewer와 Chen(2007)은 집단주의를 문화적으로 세분화하여 집단적 집단주의(collective collectivism)와 관계적 집단주의(relational collectivism)로 구분했다. 집단적 집단주의는 일반적으로 집단에 대한 의무를 강조, 집단의 규범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집단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이익을 희생할 수 있다고 여긴다. 집단적 집단주의의 내집단과 외집단의 구분이 분명하며 집단소속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관계적 집단주의는 관계성 강조, 상호협력, 상호의존, 긴밀하게 연결된 사회적 연결망 내에서의 서로에 대한 배려를 강조한다. 관계적 집단주의는 동양 문화권에서 주로 발견되며, 집단 내에서의 개인적 관계를 집단에 대한 소속감보다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적인 특징을 보인다(Oyserman et al., 2002). 여기서 한국은 관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적 집단주의의 대표 국가로 뽑힌다. 그렇기에 지역적으로 볼 때, 동아시아의 문화적 오리엔테이션은 자신과 친밀한 구성원과의 관계를 집단 전체 이익보다 더 중시하는 관계적 집단주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 한국 사회의 문화적 특성

한국 사회는 문화적으로 수직적 집단주의의 특성을 강하게 보이지만, 동시에 수평적 집단주의의 요소도 포함하고 있어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최근의 연구들은 한국 사회가 단순히 수직적-수평적 집단주의 문화로만 정의하기 어렵고, 관계주의적 특성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Oyserman et al., 2002), Brewer와

Chen(2007)이 제안한 집단적 집단주의와 관계적 집단주의의 구분은 한국 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다. 관계적 집단주의는 한국 문화의 '우리성'과 '친소관계'를 중심으로 한국 문화를 설명할 수 있다(박은미, 2020). 그리고 '위계질서'와 '연공서열'을 특징으로 하는 집단적 집단주의 요소가 한국 사회에서 공존하고 있기에 이 또한 한국 문화를 설명하는 데 필수적인 문화적 맥락이라고 말할 수 있다(한규석, 2009).

이러한 배경에 근거해서 본 연구는 한국의 관계 문화를 문화심리학적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Triandis와 Gelfand(1998)의 수직적-수평적 구분과 Brewer와 Chen(2007)의 집단적-관계적 집단주의 개념을 결합하여 새롭게 한국 사회에서의 관계 문화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세대 간의 이해와 갈등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고자 한다.

## 한국 사회에서 세대

세대(世代)란 '세'는 사람의 한평생, '대'는 대신하여 이어간다는 뜻으로, 세대는 전통사회에서 가계의 체계를 구성하는 핵심 개념으로 이전 세대와 후대를 잇는 연결성을 중요한 의미로 설명했다(구분현, 이윤석, 2021). 또한 세대에는 동시대에 살며 공동 의식을 가지는 비슷한 연령층의 사람들이란 의미로 정의할 수도 있다. 세대 간에 발생하는 이슈는 공동의 의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세대 간의 이슈는 사회갈등 현상에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구분현, 이윤석, 2021; 유병래, 2015; 최재원, 정태연, 2023). 지금까지의 세대 연구는 첫째,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로 구분하며 가계 계승의 원리로서 '세대'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둘째, 연령 증가에 따른 연령층을 함께 움직이는 동시출생집단(cohort)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청소년 세대'나 '노년 세대'라고 말할 때처럼 생애주기(life cycle)의 특정 단계에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넷째, '전쟁 세대'나 '386 세대'와 같이 특정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을 지칭하기도 한다. 세대란 개념에는 '연령'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사회학회, 1990). 본 연구에서는 세대와 관련된 여러 관점 중, 세대를 동시출생집단의 관점에서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세대'는 인류 역사상 계속해서 존재해 왔으며, 동질감과 이질감을 형성하고, 세대를 구분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구분현, 이윤석, 2021).

한국은 세대 간의 삶의 방식과 의식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세대 간 차이와 관련하여 산업화된 43개 국가를 조사한 한 연구(Inglehart, 1997)에서 한국 사회를 '세대 차이를 강하게 보이는' 사회라고 지적했다. 이런 세대 차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를 확인하는 주요 개념이 되었다(김명언 등, 2000; 나은영, 차재호, 1999; 박길성, 2002; 박재홍, 2001; 설동훈, 정태석, 2002). 한국 사회의 변화는 이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세대를 확인하고, 특정 세대가 만들어 내는 현상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이해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변화에 현실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변화와 세대를 심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려는 시도는 '심리적 세대 모형'에서 시작되었다(황상민, 김도환, 2004).

황상민과 김도환(2004)의 연구에서 보면, 세대 모형을 출생동시집단(cohort group)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특성은 해당 출생동시집단이 경험한 사회문화적 맥락(context)과 생활 양식에 기초하며 이 특성은 특정 출생동시집단의 세대 계열 특성이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동시출생집단에 대해 정리하면, ‘해방 전후 복구 세대’는 농업 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대다수 국민이 빈곤층을 겪었고, 식민지 시대를 거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극한 대립 상황에서 해방과 한국 전쟁을 경험했다. 두 번째는 ‘근대화 세대’인데, 5·16 쿠데타와 군사정권에서 한·일 국교가 정상화되고 베트남전쟁에 참여하던 세대였다. 학력 수준 증가, 출산 억제 정책, 이농현상, 반공 의식 함양과 같은 시대적 상황을 경험했다. 세 번째 ‘경제 부흥기 세대’는 유신 독재, 새마을운동, 수출진흥 정책, 중화학 공업 육성, 학력 수준의 상승, 자녀 교육비 증가와 함께 본격적인 도시화를 경험했다. 네 번째 ‘민주화 세대’는 ‘386 세대’라고 불리는 집단이다. 이들은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과 같은 역사적 경험을 한 세대이다. 이들은 전자산업과 같은 기술 집약적 산업의 발달로 고도의 경제성장기를 향유하고, 통금이나 교복 등 각종 규제가 사회적으로 해제되던 시대를 경험했다. 다섯째, ‘자율화 세대’(일명 X세대)는 문민정부가 출범하고, 정치 세대의 교체가 가속화되며 민주화가 정착되던 시기였고, IMF 경제위기나 성수대교나 삼풍백화점 붕괴를 경험하면서 세계화 등과 같은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를 경험했다. 여섯째, ‘신인류 세대’(일명 N세대)는 경제적 회복과 정보화 산업의 확산, 그리고 인터넷의

보급, 남북 간 교류의 증가 등 정보화 사회와 통일 시대에 따른 혼란과 기회가 혼재된 급속한 사회환경을 경험하면서 산업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사회환경에서 사이버 문화를 경험했다. 마지막으로 밀레니얼(M) 세대와 Z세대의 합성어인 MZ 세대는 현대의 젊은 세대로 최초의 글로벌 세대이자 인터넷 시대에 성장한 첫 세대로 청년 실업에 직면했고, 코로나로 인해 대불황을 청년기에 경험하고 있다. 이는 표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이 표는 황상민, 김도환, 2004의 자료를 재인용하며 MZ 세대에 해당 내용을 추가한 표).

표 3. 한국 사회의 출생동시집단

세대 계열	출생 연도
해방 전후 복구 세대	1925 ~ 1934
근대화 세대	1940 ~ 1949
경제 부흥기 세대	1950 ~ 1959
민주화 세대 (386세대)	1960 ~ 1969
자율화 세대 (X세대)	1970 ~ 1979
신인류 세대 (N세대)	1980 ~ 1989
밀레니얼 세대 (MZ 세대)	1990 ~ 현재

### 한국 사회에서의 문화 그리고 세대 간 특성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수직적 집단주의-수평적 집단주의, 집단적 집단주의-관계적 집단주의의 큰 맥락에서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볼 때, 2024년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화와 세대를 분석하면, 특히 한국 사회를 ‘수직적 관계문화(vertical relational culture)’와 ‘수평적 관계문화(horizontal relational culture)’가 공존하는 사회라고 제시할 수 있다. 이들의 공존은 현대 한국 사회의 독특한 특징으로 부각되고 있고, 이러한 한국 사회를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친소관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에서의 친소관계란 가까운 관계일수록 진정한 마음을 전달하지만, 먼 관계일수록 역할 수행에 걸맞은 행동을 하는 경향을 말한다(박은미, 2020). 친소관계에 대한 접근으로 우리성과 개별성을 강조하게 된다(조윤경, 2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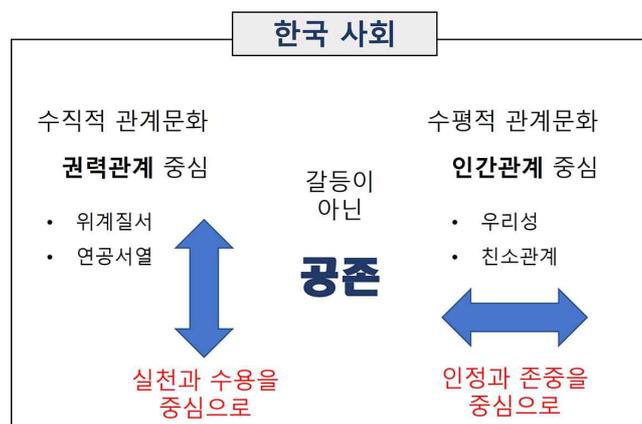
우리성은 높은 신뢰성, 심정 교류, 균등 분배, 우리 관계, 강한 집단주의적 성향과 의리를 중시한다(김기범 등, 2002; 양정은, 2019; 최상진, 2011; Yamagishi et al., 1999). 그러나 자신과 구별되는 개별성에는 낮은 신뢰성, 공적 관계, 형평한 분배, 남이라는 의식, 강한 개인의식과 공정성을 중시하는 관계를 중시한

다(박은미, 2020). 표 4는 우리성 관계와 개별성 관계를 정리한 표이다.

종합해 보면, 한국 사회는 현재 우리성과 개별성, 그리고 친소관계가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수평적 관계문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는 위계질서나 연공서열 등과 같은 수직적인 권력관계 유지하고 있다. 그렇기에 수직적 관계문화에 대한 이해 또한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서 도식화한다면, 그림 1과 같이, 한국 사회에서의 공존한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문화와 수평적 관계문화라는 관점으로 도식화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권력관

표 4. 우리성 대 개별성의 특성

우리성 관계	개별성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높은 신뢰성</li> <li>• 마음을 주고받는 심정 소통</li> <li>• 균등 분배 선호</li> <li>• 우리 관계</li> <li>• 강한 집단주의적 성향</li> <li>• 의리를 중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낮은 신뢰성</li> <li>• 공적 이해관계, 사리 소통</li> <li>• 형평 분배 선호</li> <li>• 남의 관계</li> <li>• 강한 개인주의적 성향</li> <li>• 공정 및 정의를 중시</li> </ul>



<그림 1> 한국 사회의 수직적 관계문화와 수평적 관계문화에서의 공존

계와 대인관계의 균형을 찾는 것이 핵심이다. 즉, 문화적으로 어느 하나만을 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의견을 주고받을 때는 인간관계를 ‘인정’과 ‘존중’으로,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할 때는 ‘실천’과 ‘수용’을 중심으로의 권력관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을 제안한다.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 변화의 흐름에 대해 사람들은 인식을 잘하지 않고 사는 것 같지만, 여전히 문화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고 계속해서 재창조되고 있다. 사람들은 이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화적 변화는 여전히 진행 중일 것이고, 계속해서 인식 차이(예, 세대 갈등) 또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기존의 문화 차이는 느린 흐름에서 진행되었다면, 현재 및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빨리 흘러갈 것이다. 이에 문화심리학자는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속적인 문화심리학적 이해와 함께 공존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 결론 및 제언

수직적 관계문화의 경우 집단 성원 간 위계 질서가 확고하며 권위에 복종하며, 집단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목표를 희생하는 집단 일체감을 중요시한다. 수평적 관계문화는 자신을 다른 사람과 동등하다고 생각하며, 공동의 목표를 강조하지만, 권위에 굴복하지 않으며 공동체적 목표를 강조하고 대인관계를 중시한다(한규석, 2009;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문화에서 보이는 집단정체성, 집단소속감 및 연고주의, 내-외집단에 대한 엄격한 구분과 차별, 자기(self)의 모호한 경계 등은 수평적 관계문화에 가까운 개념이다. 수직

적 관계문화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고 집단 속 개인의 서열과 차이를 인정하며 집단 내 야기되는 불평등 속에서 집단을 위한 개인 희생을 강요한다. 그러나 수평적 관계문화는 개인을 집단의 일부로 간주하지만, 모든 개인은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공동체 목표를 강조하며 개인 간에 보이는 지위 격차나 위계를 그다지 중시하지 않게 여긴다.

집단주의 안에서도 수직과 수평의 축을 기준으로 가치관과 친밀하게 여기는 대인관계의 폭에 큰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진다(한규석, 신수진, 1999). 즉, 수평적 관계문화가 평등과 소통, 향유를 강조하는 반면, 수직적 관계문화는 집단을 위한 희생을 강조하거나 불평등에 대한 감내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대인관계에서의 행위에서도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소속감을 강조한다. 수평적 관계문화는 친구나 동료들을 중심으로, 넓은 대인관계에 대한 참여와 헌신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앞에서 제시한 바대로, 한국 사회에서 문화의 주요 특징이라 여겨지는 관계주의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앞으로 수직적 관계주의와 수평적 관계주의가 개인, 집단, 대인관계 그리고 권력관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다각적이고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복합적 관계 역학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 문화의 본질을 파악하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며,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에 한국 사회에서 세대 간의 이해와 갈등은 특히, 문화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며 연구해야 할 부분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구분현, 이윤석 (2021). 한국 문화에 대한 세대 간 인식과 특성 분석. *GRI 연구논총*, 23(2), 141-168.
- 김기범, 김미희, 최상진 (2002). 한국인의 대인 관계에서의 기본도덕으로서의 의리분석; 한국인에게 진정한 친구는 의리있는 친구인가.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8(1), 79-101.
- 김동노 (2023). 개인주의, 집단주의,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와 한국 사회의 변화. *사회이론*, 153-196.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 (2000). 청소년과 성인 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6(1), 181-204.
- 김병곤 (2011). 한국 보수주의의 이념적 특징: 근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근대화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역사비평*, 8-35.
- 김소정, 양은주, 권정혜 (2013). 온라인-오프라인 자기개방이 공동체 소속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비교\_수평적 집단주의와 수직적 집단주의의 비교.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0(4), 5-42.
- 김우성, 허은정 (2007). 베이비붐세대, X 세대, Y 세대 소비자들의 소비관련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의 비교. *소비문화연구* 10(4), 31-53.
- 김진송 (1999). *서울에 만스홀을 허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 나은영, 민경환 (1998). 한국 문화의 이중성에 관한 소고. *지역과 세계*, 24, 3-16.
-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년, 1998년, 및 2010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63-93.
- 나은영, 차재호 (1999). 1970 년대와 1990 년대 간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와세대차 증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37-60.
- 박길성 (2002). 왜 세대인가. *계간 사상*, 8-27.
- 박노자 (2002). 한국적 근대 만들기Ⅲ: 한국 근대에서의 '나'의 계보. *인물과 사상*, 47, 96-108.
- 박은미 (2020). 한국인·중국인·일본인 간 친소관계 맥락에 따른 자기개념 및 행동판단 가변성의 차이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47-78.
- 박태균 (2019). 촛불의 역사적 의의와 한국 사회의 과제. *현안과 정책*, 162.
- 박혜경, 김상아 (2018). 한국인의 문화성향에 관한 메타분석;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심으로. *지역과 세계*, 42(3), 5-37.
- 설동훈, 정태석 (2002). 새로운 세대의 등장과 민족정체성의 변화. *계간 사상*, 28-52.
- 양정은 (2019). 한국적 집단주의 (우리성, we-ness) 가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5), 1-14.
- 엄승범, 김재우 (2021). 한국인의 사회경제적 가치관에 따른 사회경제적 지위, 기회공정성 인식, 주관적 안녕감 간의 관계. *한국사회*, 22(1), 3-46.
- 연명흠 (2010). 중국, 일본, 네덜란드, 한국의 개인주의 감성 비교. *감성과학*, 13(1), 79-90.
- 유경준 (2009). 우리나라 날 빈곤변화 추이와 요

- 인분석. KDI 정책포럼 215, 1-13.
- 유병래 (2015). 세대갈등과 문화생활-시민성 구현과 관련하여. *철학·사상·문화* 19, 124-178.
- 이종환 (2000). 한국인의 대인관계의 심리사회적 특성: 집단주의적 성향과 개인주의적 성향으로의 변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6(3), 201-219.
- 임성윤 (2023). MZ 세대의 개인주의 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청소년문화포럼*, 73, 97-106.
- 장민희, 최유진, 정태연 (2022). 한국 사회의 불공정성과 그 변화 가능성에 대한 인식. *문화와융합*, 44(5), 709-730.
- 정건화 (2000). 외환위기 이후 도시가구의 생활상태 변화. IMF이후 한국의 빈곤. 서울: 나남출판.
- 정용인 (2016.12.06.) 혁명의 동력 촛불, 언제까지 들어야 할까. *주간경향* 1204호.  
[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611291053101](https://weekly.khan.co.kr/khnm.html?mode=view&code=115&art_id=201611291053101)
- 정태연 (2010). 한국사회의 집단주의적 성격에 대한 역사 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3), 53-76.
- 정태연, 김기범, Gelfand, M. J. (2005). 문화의 새로운 차원 '경직성과 유연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3), 101-116.
- 조운경 (2003). 한국인의 나의식-우리의식과 개별성-관계성, 심리사회적 성숙도 및 대인관계문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5(1), 91-109.
- 최계영 (2002). 한국종업원의 수직수평적-개인 집단주의의 문화가치 태도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상진 (2011). *한국인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최상진, 한규석 (1998). 심리학에서의 객관성, 보편성 및 사회성의 오류: 문화심리학의 도전.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7(1), 73-96.
- 최재원, 정태연 (2023). 삶에 대한 가치관과 태도에 대한 세대차이 연구. *문화와융합*, 45(10), 887-900.
- 통계청 (2024). 2023 한국의 사회지표. 세종: 통계청, 사회통계국.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0089](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10820&act=view&list_no=430089)
- 한국사회학회 (1990). *한국사회의 세대문제*. 서울: 나남출판.
- 한규석 (2009). *사회심리학의 이해(3판)*. 서울: 학지사.
- 한규석, 신수진 (1999). 한국인의 선호가치 변화-수직적 집단주의에서 수평적 개인주의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93-310.
- 한성열, 안창일 (1990). 집단주의와 나이, 교육, 결혼 및 주거 형태와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5(1), 116-128.
- 황상민, 김도환 (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세대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Aycicegi-Dinn, A., & Caldwell-Harris, C. L. (2010). Individualism-Collectivism among Americans, Turks and Turkish Immigrants to the U. 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9-16.
- Brewer, M. B., & Chen, Y. R. (2007). Where (who) are collectives in collectivism? Toward conceptual clarification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Psychological Review*, 114(1),

- 133-151.
- Burroughs, S. M., & Eby, L. T. (1998). Psychological sense of community at work: A measurement system and explanatory framework,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6(6), 509-532.
- Chan, D. K-S., Gelfand, M. J., Triandis, H. C., & Tzeng, O. (1996). Tightness-looseness revisited: Some preliminary analysis in Japan and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31(1), 1-12.
- Daun, A. (1991). Individualism and collectivity among Swedes. *Ethnos*, 56(3-4), 165-172.
- Gelfand, M. J., Chan, D., Triandis, H. C., Yamaguchi, S., & Nishii, L. (1998). Theory and empirical assessment of the cultural construct of tightness-looseness in the US and Japan. Post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Cross-Cultural Psychology, Bellingham, WA, USA.
- Hamamura, T. (2012). Are cultures becoming individualistic? A cross-temporal comparison of individualism-collectivism i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6, 3-24.
- Hofstede, G. (1991).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McGraw-Hill.
- Markus, H. R., & Kitayama, S. (2014). Culture and the self: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In *College student development and academic life* (pp. 264-293). Routledge.
-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postmodernization and changing perceptions of risk.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3), 449-459.
- Oyserman, D., Coon, H. M., & Kemmelmeier, M. (2002). Rethinking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evaluation of theoretical assumptions and meta-analyses. *Psychological Bulletin*, 128(1), 3-72.
- Triandis, H. C., & Gelfand, M. J. (1998).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18-128.
- Yamagishi, T., Kikuchi, M., & Kosugi, M. (1999). Trust, gullibility, and social intelligence.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1), 145-161.
- Yamaguchi, I. (2003). The relationships among individual differences, needs and equity sensitivity.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18(4), 324-344.
- Zhang, J., Mandl, H., & Wang, E. (2010). The Effect of Vertical-Horizontal Individualism-Collectivism on Acculturation and the Moderating Role of Gender.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5, 124-134.

논문 투고일 : 2024. 10. 13

1 차 심사일 : 2024. 11. 14

게재 확정일 : 2024. 11. 22

## A Cultural Psychological Understanding for Coexistence in Korean Society: Focusing on Vertical Relationalism and Horizontal Relationalism

**Junseong Park**

Chung-Ang University

Korean society has a historical background of valuing groups or communities over individuals for a long time. However, there are currently various discussions regarding this trend. In addition to the Hofstede's conventional view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d Triandis and Gelfand's(1998) vertical collectivism-horizontal collectivism, Brewer and Chen(2007) divided collectivism into relational-collectivism and collective-collectivism by culturally subdividing it. This study attempted to explain the Korean culture by combining the vertical-horizontal division of Triandis and Gelfand(1998) and the concept of collective-relational collectivism of Brewer and Chen(2007) in order to analyze Korean culture in depth from a cultural psychological perspective.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culture of the Korean society and to explain the social phenomenon of conflict and coexistence between generations currently arising in Korean society. Accordingly, the culture in Korean society was pres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the vertical-relational culture and horizontal-relational culture. Finally,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empirical research in the future were presented for this proposal.

*Key words* : Korean society, vertical relational culture, horizontal relational culture, cultural psychology, coexistence